

CH24 design by Hans J. Wegner



한스 J 웨그너 Hans J. Wegner
1914-2007

한스 웨그너는 20세기에 가장 중요한 디자이너 중 한 명으로 넓은 범위의 가구 디자인을 진행했다. 나무에 대한 장인정신과 완벽함을 추구하는 고집으로 그의 가구는 편리하면서도 친환경적인, 그리고 조각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것으로 유명하다.



공식수입원
(주) 형우모드

- 백화점 롯데백화점 본점 (02)772-3974 갤러리아 웨스트(02)6905-3908
- 직영점 압구정 본점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4-4번지 화경빌딩 1층 (02)542-2544 부산 직영점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 191-8 (051)751-7181
- 본 사 (주)형우모드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191-1 형우빌딩 (02)334-4014, www.hwmode.co.kr

NO. 17

www.woodplanet.co.kr

WOOD LIFE MAGAZINE - 07 2013 우드플래닛

WOOD

P L A N E T



Seasonal Special

My Summer Story, Camping

W1 House
Overseas House
Restaurant
Furniture Trend
Wood Sculptor
Essay

그 집의 모든 경계에는 이야기가 있다
오스트리아 세인트요한 인 티롤 비센호프
여름 입맛 돋우는 오토 쿨진 셋
다시 보자, 패치워크 가구
이탈리아 목조각가 윌리 버지네
수요기획 <네 남자의 트리하우스> 제작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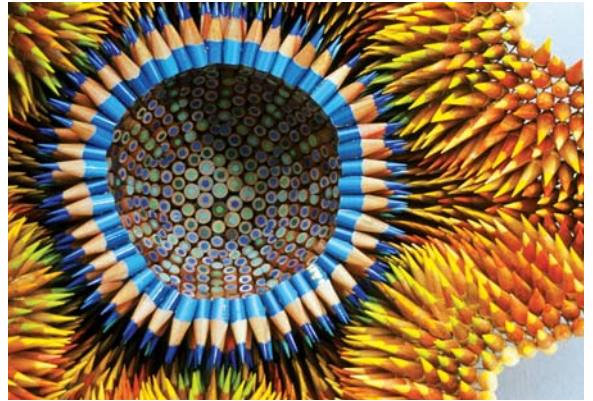
정가 12,000원



9 772234 780003
ISSN 2234-7801

매일 1% 더 행복한 나무생활

WOOD



FRAME

<u>8</u>	Product	아이를 위한 착한 동물농장
<u>10</u>	Product	책상 위 그린 아이템
<u>12</u>	Product	손 안의 호사
<u>14</u>	Product	단추도 패션이다
<u>16</u>	Product	Open the door!
<u>18</u>	Product	아끼는 공구 컨디션 유지하는 법
<u>20</u>	Style	007보다 멋있게
<u>22</u>	Style	착용감 좋은 나막신, 미즈토리 게다
<u>24</u>	Style	요리하는 즐거움, 보는 즐거움 어느 게 더 클까?
<u>26</u>	Style	이것이 바로 럭셔리 힐링?
<u>28</u>	Style	비는 내리고, 음악은 흐르고
<u>30</u>	Style	더글라스 퍼, 헤밍웨이를 추억하다
<u>32</u>	Character	한용수 작가의 '빨간코네모' 스토리
<u>34</u>	Collection	더 향기로운 커피를 위해
<u>36</u>	Collection	티크 거울에 비춘 내 모습
<u>38</u>	Collection	재활용 목재로 만든 이색 조명용품 셋
<u>40</u>	Focus	나무도 타투를 한다
<u>42</u>	Focus	밤을 잊은 그대에게
<u>44</u>	Focus	생각하는 가구, 배려하는 가구, 보살피는 가구
<u>46</u>	Issue	국내 최고 높이의 목조건물이 온다
<u>48</u>	Fun&Joy	계산기가 달라졌어요!
<u>49</u>	Fun&Joy	나의 아날로그 시대
<u>50</u>	People	김동인 작가의 환경지킴이 나무 로봇
<u>51</u>	Fun&Joy	스탬프 변신의 좋은 예
<u>52</u>	Fun&Joy	일상이 재미있어지는 티슈 홀더
<u>53</u>	Fun&Joy	여름 위를 달리다
<u>54</u>	Fun&Joy	어른도 놀고 싶은 일식사조 플레이하우스
<u>55</u>	Trend	새 기분 내기
<u>58</u>	Issue	캄파나 형제가 디자인한 New Hotel
<u>60</u>	Impact	1억 원 그 이상의 가치
<u>62</u>	Impact	연필, 예술이 되다
<u>64</u>	Travel	물디브로 간 내 여름



<u>66</u>	Trend	디자인으로 '조금 더 나은' 세상 만들기
<u>67</u>	Architecture News	최신 건축 뉴스
<u>68</u>	Interior News	핫한 인테리어 뉴스
<u>69</u>	Furniture News	새로운 가구 뉴스
<u>70</u>	Exhibition	이달의 전시
<u>71</u>	Book	이달의 책

SEASONAL SPECIAL

<u>72</u>	My Summer Story, Camping
-----------	--------------------------

ARCHITECTURE

<u>86</u>	W1 House	따로 또 같이, 안성 모아집
<u>94</u>	Wood House	대전시 죽동 제로에너지타운하우스
<u>102</u>	Overseas Architecture	비센호프, 내 쉴 곳은 나의 집뿐이리
<u>114</u>	Overseas Architecture	엔데사 파빌리온, 카탈루냐의 태양을 삼키다
<u>122</u>	Overseas Architecture	힐링엄 클럽의 노스텔지어는 파랗다
<u>124</u>	Architectural Object	건축 오브제라고 들어보셨나요?

SPACE

<u>129</u>	Restaurant	여름 입맛 돋우는 오트 퀴진 셋
<u>142</u>	Condominium	모던 빈티지로 세련됨과 따스함을 잡다
<u>148</u>	Beauty Salon	상상력을 자극하는 'End...Link'

FURNITURE

<u>152</u>	Brand Story	스웨덴 유아용 가구 브랜드 스반
<u>158</u>	Patchwork Furniture	다시 보자 패치워크 가구
<u>164</u>	Kitchen Furniture	여자의 로망이 완성되는 키친 퍼니처

ART&CRAFT

<u>168</u>	Wood Sculptor	윌리 버지네, 나에게 종교는 사람이다
------------	---------------	----------------------

WOOD LIFE

<u>178</u>	Power Blogger	토털 홈 스타일리스트 꿈꾸는 블로거 이진하
<u>182</u>	Special Essay	KBS 수요기획 <네 남자의 트리하우스> 제작 이야기
<u>186</u>	Easy Woodworking	요리가 즐거워지는 도마 만들기
<u>190</u>	협회 뉴스	



Editorial Department 편집부

Editor in chief | Ji Keunhwa 지근화 편집장 zigzagroot@woodplanet.co.kr

Editor | So-Youn 소연 기자 syjeong@woodplanet.co.kr

Editor | Oh Yeseul 오예슬 기자 ysoh@woodplanet.co.kr

Art Department 미술팀

Freelance Designer | Byun Seokhoon 변석훈 seokun@hanmail.net

Photography 사진팀

Juno Studio | Lee Juno 이준호

Studio Wonder | Lee Namsun 이남선

Advertising / Marketing Team 독자사업팀

Manager | Lee Songyi 이송이 과장 sylee@woodplanet.co.kr

Administration Biz Team 경영지원본부

Staff | Hwang Jihye 황지혜 대리 jhhwang@woodplanet.co.kr

Executive Director | So Beom Joon 소범준 본부장

Writing Staff 집필위원

Columnist | Ruth Slavid 해외 칼럼니스트

Timber Consultant 목재자문

Yoolim Timber 유림목재

Executive Director | Kim Youngchul 김영철 전무

Sales Manager | Cho Sungmin 조성민 부장

CEO-Publisher | Youk Sangsoo 옥상수 발행인 ssyouk@woodplanet.co.kr

2013년 7월 1일 발행 No.17/2011년 10월 17일 등록, 등록번호 마포라 00344

발행공급처 (121-914)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DMC 이안 2차 1302호 (주)라이프폼

대표전화 02-722-4311 팩스 02-722-4315

홈페이지 www.woodplanet.co.kr

인쇄 (주)제일프린테크

본지에 실린 외부 글은 필진의 의견을 따릅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위원회의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글, 그림, 사진 등의 자료는 무단 전재하거나 복제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라이프폼



독일 코블렌츠 전망대 건축 오브제라고 들어보셨나요?

글 오예슬 기자 | 사진 Thomas Faes & Polizeiprasidium

지난 2011년 코블렌츠에서 독일원예박람회 분데스가르텐샤우가 개최되었다. 박람회를 기념해 코블렌츠에 많은 건축물이 세워졌지만 그중에서도 데티에 아키텍처(Dethier Architectures)가 설계한 전망대에 눈길이 간다. 코블렌츠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최고의 전망을 선사한 덕분에 행사가 끝난 뒤엔 지역을 상징하는 '건축 오브제'가 되었다.

건축 개요

프로젝트명

Belvedere for the 2011 Bundesgartenschau

위치

독일 코블렌츠 블라이덴베르크

건축주

Bundesgartenschau Koblenz 2011 GmbH and Landesforsten Rheinland-Pfalz

설계

Dethier Architectures

구조

엔지니어링 Ney & Partners

시공

Mohr Ingenieurholzbau GmbH

완공

2011년 5월





최대 박람회, 최고 전망대

분데스가르텐샤우는 60년 전통을 지닌 최대 규모의 원예 박람회로 장장 185일 동안 열린다. 3천여 가지의 작고 큰 행사가 열리며 매년 2백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박람회를 찾는다. 원예를 사랑하는 전 세계인이 몰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관람객을 위한 기반 시설이 무척이나 중요했다. 마침내 전망대 건축을 위해 국제적인 설계 경기를 진행했고, 모젤(Moselle)강과 라인(Rhine)강이 내려다보이는 에렌브라이트슈타인 성(Ehrenbreitstein Fortress) 근처에 세우기로 결정했다.

가운데가 뚫린 삼각 형태의 전망대는 코블렌츠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에 위치해 있다. 동선을 최대한 단순하게 설계했기 때문에 통로를 따라 걷기만 해도 갤러리에서 옥상까지 쉽게 오를 수 있다. '걷기'와 '좌회전'만 열심히 해주면 전망대를 오르는 중간 중간 코블렌츠가 한 눈에 담긴다.

지상 10m 높이, 골짜기 너머로 15m 이상 뻗어 나간 캔틸레버(cantilever)는 전망대의 상징과도 같다. 재료는 더글라스 피와 산화처리 한 코르텐 강(Cor-Ten steel) 빔. 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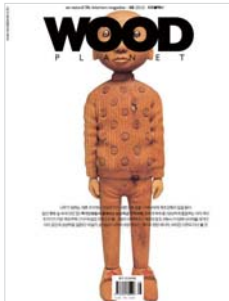
만 보더라도 프리페브로 지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철저한 건축 조사와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엔지니어링 덕분에 가벼운 구조와 다이내믹한 관람 동선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다. 통로를 따라 세워진 측면 트러스는 X자를 그리며 모자이크를 형성, 구조적 안정성을 높인다.

아름다운 풍경에 힘을 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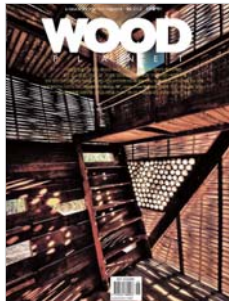
코블렌츠 전망대는 전형적인 전망대 디자인을 벗어난 모던함과 수준 높은 건축 기술이 돋보이지만, 자연에 대한 재인식을 유도하고자 한 의도를 빼놓을 수 없다. 전망대를 오르내리는 동안 일상에서는 포착할 수 없었던 코블렌츠의 미묘한 색과 향을 느낄 수 있다. 독특한 디자인으로 멀리서도 쉽게 눈에 띄고, 옆으로 긴 실루엣이 계곡의 풍경과 조우하니 '건축 오브제'라는 말이 실감난다.

존재의 힘을 지닌 것이 오브제이듯 코블렌츠 전망대는 에렌브라이트슈타인 성과 두 개의 강이 만나는 도이체스 에크(Deutsches Eck)를 더욱 아름답게 만든다. 코블렌츠의 랜드마크로 자리한 코블렌츠 전망대는 단발성 이벤트로 지어진 시설이 아닌 실용적인 건축으로 '건축 오브제'가 과연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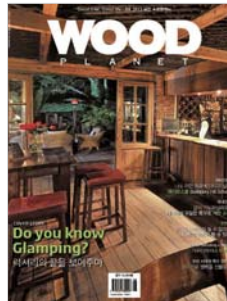
2012 05 NO 03



2012 06 NO 04



2012 07 NO 05



2012 08 NO 06



2012 09 NO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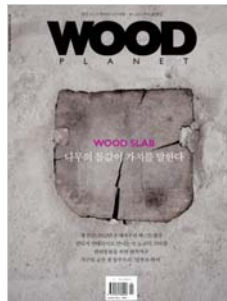
2012 10 NO 08



2012 11 NO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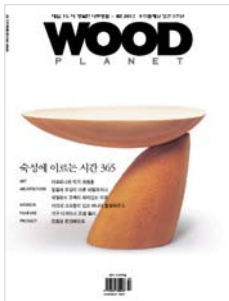
2012 12 NO 10



2013 01 NO 11



2013 02 NO 12



2013 03 NO 13



2013 04 NO 14



2013 05 NO 15



2013 06 NO 16



2013 07 NO 17

정기 구독 안내

전화 02-722-4311
이메일 woodplanet@naver.com
홈페이지 www.woodplanet.co.kr
구독료 1년 120,000원(각권 12,000원)

정기구독료 입금계좌

예금주 (주)라이프콤
신한은행: 100-027-882189
우리은행: 1005-801-984789
국민은행: 598601-04-045440
알라딘에서도 정기구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과월호 구매

과월호 구매 및 대량 구매는 별도로 연락주세요.
T 02-722-4311

귀납법에 의한 결론, 우드플래닛은 럭셔리 잡지다!

사람들은 '나무'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까? 단, 지금 말하는 나무는 'Tree' 가 아니라 'Timber' 다. 각자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다르겠지만, 어떤 이들은 굴러다니는 나무토막을 떠올린다.

언젠가 명품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잡지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때 몇 수 아래로 보는 시선이 느껴졌다. '나는 럭셔리, 당신은 나무토막'이라는 속의 말이 들려오는 듯했다. 그런 생각은 분명히 옳다. 두 가지 측면에서 나무도 럭셔리 과(科)에 속할 수 있는 자질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우선 가격적인 면을 보자. 집 지을 때 "나무 좀 써볼까?" 하고 걱정을 받았다가 까무러친 건축주가 많다는 말이 있듯 나무 값은 상당히 비싼 축에 든다. 그러니 비싼 하드우드며 만만치 않은 장미 값을 생각하면 목공 취미아말로 럭셔리한 취미 중 하나다. 목공 작업 하는 사람을 그 옛날

'동네 목수 김씨' 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나무가 럭셔리한 두 번째 이유, 나무에는 '목숨'이 있기 때문이다. 목숨만큼 럭셔리한 게 있을까. 목숨은 그 어느 것도 대체할 수 없는, 귀하고 가치 있는, 럭셔리의 절정이다. 잘라 베어진 나무라 할지라도 나무는 여전히 세상과 소통하고 호흡하며, 자신의 운명과 역사를 스스로 이끌고 간다. 소멸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살아있는 생명체가 그러하듯이 말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나무를 향유하는 일도 럭셔리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자, 사람들이 나무를 향유할 수 있도록 우드플래닛이 앞장서고 있으니, 이쯤 되면 우드플래닛 역시 럭셔리 잡지 군에 속할 자격이 있지 않은가. 나무는 럭셔리의 외피가 아니라 본질을 향해 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다만 무지할 뿐이다.

- 월간 우드플래닛 편집부